

#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김정아 · 최준\*

##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는 것이다’ 교육 내용의 문제점
3.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 분석
  - 3.1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
  - 3.2 한국어교육을 위한 ‘-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
4. ‘-는 것이다’의 학습 단계와 학습 모형
  - 4.1 ‘-는 것이다’의 학습 기능과 단계 설정
  - 4.2 ‘-는 것이다’의 학습 모형
5. 마무리

##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정형표현 ‘-는 것이다’를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는 것이다’는 화자의 발화 내용을 ‘강조’하거나 ‘단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강조와 단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것이다’는 상당히 다양한 사용역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는 것이다’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는 것이다’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무엇보다 그간 한국어의 정형적인

---

\* 김정아(제1 저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최준(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표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는 것이다’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이 추상적이며 다양해서 학습 단계에 맞게 제시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는 것이다’는 상황 의존적인 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선·후행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사적인 정보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는 것이다’는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앞선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장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왜’나 ‘즉’, ‘그러므로’와 같이 사용된다는 것도 ‘-는 것이다’의 중요한 통사 정보이다. ‘-는 것이다’는 궁극적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데 한국어교육에서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요약’, ‘감정 표현’, ‘주장’, ‘확인’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는 것이다, 표현항목, 정형표현, n-gram, 강조, 요약, 주장, 감정표현, 확인

## 1. 머리말

‘관형형전성어미+의존명사+계사’의 구조를 갖는 ‘-는 것이다’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사용된다.

- (1) a. 이 커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b.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거예요.

(1a)는 지정문으로 ‘커피’와 ‘것’은 동일한 대상이 되며 ‘이 커피’=‘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된다. 전형적인 ‘이다’ 구문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는 ‘-는’과 ‘것’을 통해 명사화되어 일반적인 ‘이다’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다. 반면 (1b)는 ‘커피’와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는’은 동일한 대상이 되지 않는

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잘 수 있다’는 명제적 사실을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때 ‘-는 것이다’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의미 단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의존명사 ‘것’과 관형형진성어미 ‘-는’, 계사 ‘이다’가 결합한 구문을 국어학에서는 보조용언(신선경 1993)이라 하고 한국어교육에서는 표현문형(장미라 2009, 조인정 2012)이라고 한다. 보조용언과 표현문형은 모두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구문(constru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는 것이다’는 문장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홍사만 2006, 신선경 1993, 김태엽 1990, 박나리 2012 등) 실제 대화나 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출현하는 정형표현(formulaic expression)<sup>1)</sup>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1b)와 같이 문법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며 정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는 것이다’류 표현의 실현 기능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 적용할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껏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논의된 ‘-는 것이다’류 표현들은 실제 대화에서 앞서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또 텍스트에서 선행 내용을 요약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는 것이다’류의 표현을 ‘강조’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단일화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요약이나 확인과 같이 문맥에서 실현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는 것이다’류 표현은 ‘것’을 중심으로 결합한 ‘-(으)ㄴ

---

1) 정형표현(formulaic expression)은 한 마디로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는 표현을 말한다. 정형표현은 문법적으로 생성되거나 분석되지 않는 한 단위로서, 표현 전체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사용할 때에 기억에서 되찾아 쓰는 연속체 표현을 말한다(Wray 2002: 465). Chomsky(1957)가 말한 언어의 생산성(productivity)과는 대치되는 언어의 정형성(formulaicity)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은 유한한 언어로 무한한 언어 표현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유한한 언어로 만든 특정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포착한 것이다. 언어의 정형성을 통해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언어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은 자주 사용이 되지만 어떤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진웅 2019: 325).

것이다', '-던 것이다', '-다는 것이다' 등을 아우른다.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으)ㄴ 것이다'는 추측과 예정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는 것이다', '-(으)ㄴ 것이다', '-던 것이다'와는 구분된다. '-는 것이다'류 표현들은 문맥에서 궁극적으로 강조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는 것이다'류 표현을 '-는 것이다'로 칭하기로 할 것이다.

## 2.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는 것이다' 교육 내용의 문제점

'-는 것이다'의 사용 양상과 한국어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연구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우선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이하 '세종 말뭉치')를 n-gram<sup>2)</sup>으로 분석하여 한국어의 정형적인 사용 유형 중 '-는 것이다'의 빈도와 사용 유형을 살펴 보았다.

[표 1] 세종 말뭉치 문어 n-gram 분석 자료 상위 기준 정렬

	3-gram	빈도	4-gram	빈도	5-gram	빈도
1	-(으)ㄴ 수 있	2473.41	-(으)ㄴ 것이다	694.56	<u>-았/었던 것이다</u>	199.49
2	것이다	2010.689	-(으)ㄴ 수 있는	639.91	-기도 했다	132.87
3	-이었다	1729.95	-(으)ㄴ 수 있다	629.04	할 수 있다	123.62

2) 한 언어에서 연속된 단어 연쇄를 계량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론인 N-gram 언어 모델(N-gram language model)은 현재 구글을 비롯하여 영어를 대상으로 한 확률적 언어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장석배 2015: 39). 말뭉치에서 특정한 형태의 출현 빈도를 선별적으로 산출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다른 형태의 출현 빈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목표 형태의 상대적인 빈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는 것이다'가 다른 표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것과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4	-고 있다	1279.45	-고 있었다	472.92	-(으)ㄹ 수 있을 것	108.73
5	-(으)ㄹ 것이	1241.15	-는 것이다	437.59	-는 것이었다	104.71
6	-에 대한	1028.23	-(으)ㄴ 것이다	424.17	-았/었기 때문이다	102.36
7	-고 있는	968.82	-기 때문이다	385.03	-아야/어야 할 것이	94.99
8	-는 것이	948.7	-지 않았다	317.73	-았/었을 것이다	93.37
9	-(으)ㄴ 것이	920.49	할 수 있-	280.11	-(으)ㄹ 수 있는 것	90.65
10	-(으)ㄹ 수 없	853.3	-아/어 있었다	263.6	-(으)ㄹ 수 있었다	90.13

[표 2] 세종 말뭉치 구어 n-gram 분석 자료 상위 기준 정렬

	3-gram	빈도	4-gram	빈도	5-gram	빈도
1	-는 거이	2,728.90	-는 거이야	952	-(으)ㄹ 수 있는 거	128
2	거이야	1,923.00	-(으)ㄹ 수 있는	586	-는 게 아니라	117.6
3	-(으)ㄹ 수 있	1,812.10	-(으)ㄴ 거이야	547	을/를 하는 거이	102
4	-(으)ㄴ 거이	1,518.10	-는 거이에요	432	하는 거이야	101.2
5	-아/어 가지구	1,149.80	하는 거이	351	같은 경우에는	95.3
6	-아/어 가지고	900.5	-(으)ㄹ 수도 있	342	할 수 있는	82.6
7	거이에요	853.6	되는 거이	304	-아/어 주는 거이	81.9
8	-는 게 <sup>3)</sup>	829	-(으)ㄹ 수가 있	265	되는 거이야	77.4
9	-(으)ㄹ 거이	805.2	할 수 있	263	-아야/어야 되는 거이	76.7
10	그 다음에	787.4	-(으)ㄹ 거이야	250	-(으)ㄴ 게 아니라	70.7

[표 1]과 [표 2]는 세종 말뭉치를 n-gram으로 분석한 결과를 빈도를 기준으로 정렬한 상위 10개의 3-gram, 4-gram, 5-gram 목록이다.<sup>4)</sup> 구어와 문어에서

3) 조사 ‘이’와 계사 ‘이’의 형태가 같으므로 조사는 줄임형인 ‘-는 게’로, 계사는 본말 형태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단어(형태)를 분석 기준으로 하였고 20개 이상의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3-gram,

‘-는 것이다’와 관련된 유형이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더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sup>5)</sup> 또 문어 자료에서는 ‘-는 것이다’, ‘-(으)ㄴ 것이다’, ‘-았/었던 것이다’ 등의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어에서는 ‘것’의 구어형인 ‘거’의 쓰임이 활발하고 ‘해체 종결형’ ‘-는 거야’, ‘-(으)ㄴ 거야’ 유형이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는 것이다’의 사용 분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구어 말뭉치에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는 것이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이해현(2016: 42-43)에 의하면 ‘-는 것이다’는 주장을 위한 논설문이나 강연에서 자주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일상 대화와 독백(경험담, 동화, 영화 줄거리 말하기)의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국 기존에 문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논의되었던 ‘-는 것이다’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어에서 빈번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는 것이다’가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 말뭉치를 n-gram분석하여 ‘-는 것이다’의 유형과 출현 빈도를 산출해보았다.

[표 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는 것이다’의 유형 빈도

n-gram	type	초급	중급	고급
3-gram	-는 것이	22	109	87
	-(으)ㄴ 것이	7	77	61
	-는 거이	14	80	48

4-gram, 5-gram의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100만 단어 당 출현 빈도를 산출한 것이다.

5) 기존의 논의에서 ‘-는 것이다’는 문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지만 세종 말뭉치를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구어에서 더 활발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교육의 표현문형이 지나치게 문어의 관점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구어 표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3-gram	-(으)ㄴ 거이	9	77	33
4-gram	-는 것이다	1	22	27
	-(으)ㄴ 것이다	0	46	17
	-는 거이야	1	13	8
	-(으)ㄴ 거이야	0	14	9
	하는 거이	1	10	7
	되는 거이	1	3	4
5-gram	-았/었던 것이다	0	4	3
	-는 것이었다	0	0	0
	을/를 하는 거이	1	1	2
	하는 거이야	2	1	0
	-아/어 주는 거이	0	0	0
	되는 거이야	0	0	0
	-아야/어야 되는 거이	0	2	3
계		59	459	309
평균		11.8	76.5	77.2

[표 3]은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난 ‘-는 것이다<sup>6)</sup>가 한국어교재 말뭉치<sup>7)</sup>에

6) [표 3]은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난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7) 아래의 한국어 교재를 전사한 말뭉치 자료를 단어(형태) 기준으로 n-gram 분석하여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대화문과 읽기·듣기 지문, 활동 지시문 등 메타 텍스트도 포함된 자료임을 미리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 교재는 간접적인 학습효과가 다른 텍스트에 비해 크다고 보고 한국어교재에서 ‘-는 것이다’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등급	교재 및 출판 연도
초급	경희(2004), 고려(2010), 서강(2008), 연세(2009), 이화(2009)
중급	경희(2004), 고려(2010), 서강(2008), 연세(2009), 이화(2009), 서울(2000)
고급	경희(2004), 고려(2010), 서강(2008), 연세(2009)

서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한 것이다. 초급에서는 교재 당 평균 11.8번, 중급과 고급에서는 교재 당 평균 70회 이상이 나타난다. 실제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빈도, 한국어 교재에서 자주 나타나는 다른 n-gram의 빈도 등과 비교했을 때 교재에서 ‘-는 것이다’가 노출되는 빈도는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는 것이다’가 표현문형이나 문법항목으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미라(2009: 237-239)에서도 한국어교재의 읽기 지문을 대상으로 ‘-는 것이다’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표현문형으로 제시되는 ‘-(으)ㄴ 것이다’나 ‘-(으)ㄴ/는/(으)ㄴ 것 같다’의 출현 빈도보다 표현문형으로 제시되지 않는 ‘-(으)ㄴ/는 것이다’의 교재 출현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 결국 실제로 ‘-는 것이다’는 한국어교재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표현문형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는 것이다’는 의미와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 ‘-(으)ㄴ 것이다’, ‘-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간접 인용의 형태를 가지는 ‘-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의 형태도 자주 사용된다. 또한 문장에서 단정과 강조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뿐만 아니라 텍스트 차원에서는 인과관계, 상세화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므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단계에 맞는 형태와 의미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둘째, 의미가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것’이 가지는 의미의 추상성과도 관련이 있다. 홍사만(2006: 127-136)은 ‘것’의 의미 규명이 어려운 것은 그 추상성의 층위가 높고 환경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는 것이다’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의존명사+이다’의 같은 구성을 보이는 ‘-는 법이다’, ‘-는 모양이다’에 비해 의미 규명이 어렵고 그 의미도 구체적이지 않아 표현문형이나 문법항목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sup>8)</sup>

8)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세 가지 사전과 문법서에서 ‘-는 것이다’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았다. 이 자료에서는 ‘-는 것이다’의 의미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 정형성을 가지는 표현들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9)10)</sup> 이 같은 원인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이 기존의 국어문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는 것이다’는 의존명사 ‘것’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한국어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언어 단위, 즉 정형표현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인정되는 관용어나 연어에 비해 정형표현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 빈도가 높은 정형표현은 그 언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 표현은 개인, 사회, 집단이 사용하는 정형적인(관습적인) 표현들이다(Sinclair 1991).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도 단어 이상의 관습화된 표현을 익히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Pawley & Syder(1983), Lewis(1992), Nattinger & DeCarrico(1992))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패턴으로 사용되는 고빈도 표현인 ‘-는 것이다’는 출현 빈도와 정형성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조’와 ‘단정’과 같은 양태적 의미와 담화에 따른 기능적인 사용 양상을 고려했을 때 ‘-는 것이다’는 한국어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는 것이다’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상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국립국어원 2005: 164)

[-는 것]: ‘-는 것이다’ 구성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객관화하여 강조할 때 주로 쓰인다.

②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이희자·이종희 2001: 187)

[-는 것이다]: [동사, ‘있다/없다’에 쓰이어 (-는다’라고 해도 될 것을 ‘-는 것이다’라고 하여) 말하는 이의 생각을 객관화시켜 강조하여 말함을 나타낸다.

③ 표준국어대사전 web사전

[것]: (-는/은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9) 이 연구에서는 정형성을 가진 표현을 정형표현(formulaic expressions)이라고 1.에서 설명하였다.

10) 정형표현(formulaic expressions)에 대해서는 최준 외(2010), 남길임·최준(2014), 최준(2015), 장석배(2015), 강범모(2017)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또 한국어교육에서 정형표현을 적용하는 연구는 홍혜란(2015), 김정아(2019)가 있다.

### 3.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 분석

#### 3.1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

‘-는 것이다’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의존명사 ‘것’에 대한 논의에서 파생된 ‘-는 것이다’에 대한 논의와 문법화된 ‘-는 것이다’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또 역사적인 관점(김언주 1996, 홍사만 2006), 통사적인 관점(신선경 1993), 의미적 관점(강소영 2004, 박나리 2012), 텍스트 기능의 관점(고영근 1995, 박소영 2001, 김종복 외 2008, 안인경·강병창 2009, 장경현 2010, 정상철 2016), 한국어교육적 관점(장미라 2008, 조인정 2011)에서의 연구가 있었다.

앞선 연구들은 상이한 관점을 가지지만 ‘-는 것이다’가 양태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일치한다.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Lyons 1977)라고 정의되며<sup>11)</sup> ‘-는 것이다’는 강조와 단정, 당위 등의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강조와 단정, 당위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는 화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 (2) a. 즉, 남성은 단 한 번에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내는 데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좀 더 까다롭게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기 때문에 옷을 사는데 시간을 더 투자한다는 것이다.(장미라 2009: 233)
- b. 상품과 자본의 흐름은 범지구적으로 자유로운데 반해, 그 조절과 통제는 개별 민족국가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 요컨대 경제가 정치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안인경·강병창 2009: 94)
- c. 결국 최희섭과 봉중근, 김선우는 아직 대표팀 탈락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김종복 외 2008: 151)
- d. 따라서 북한당국은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성해야 함은 물론 세계 인류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임니

---

11) 하지만 화자의 태도와 의견에 전제되는 주관성 때문에 양태를 범주화하기 위해 ‘증거성’, ‘의외성’, ‘정감성’이 함께 논의된다.

다.(조인정 2011: 340)

(2a-d)는 ‘즉’, ‘요컨대’, ‘결국’, ‘따라서’라는 접속부사와 ‘-는 것이다’가 결합한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는 예이다. 하지만 (2a)는 사건의 객관화로 해석하고 있고 (2b)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 (2c)는 사건을 강조하는 것, (2d)는 추론이나 결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는 것이다’의 기능이 연구자에 따라서 사건을 객관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고 요약의 기능이나 강조 혹은 추론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것’이 가진 추상성과 환경 의존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선행 정보와의 관계에서 ‘것’은 앞서 제시한 정보를 인계 받기 때문에 선행 정보의 요약으로도 해석되고 결론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양태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조’라고 설명하기에는 ‘-는 것이다’가 실제로 실현되는 기능이 (2a-d)와 같이 다양하다. 따라서 ‘-는 것이다’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일상 대화나 학술 강의, 설명, 주장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는 것이다’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3.2 한국어교육을 위한 ‘-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

담화(discourse)는 화자와 청자가 한 가지 화제, 사건, 주제에 대하여 교환하는 언어 단위, 혹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응집성, 결속성, 의미성을 가진 언어 단위이다(박영순 2004: 17). ‘담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담화 기능’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을 담화로 정의하고 담화 기능은 이때 사용되는 화용적 기능으로 볼 것이다. 예컨대, 기능을 나타내는 ‘-(으)리 수 있다’는 학술 담화에서는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으)리 수 있다’는 학술 담화에서 ‘완곡 표현’의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다’가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의 하위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어에서는 일상 대화, 문어에서는 글쓰기와 읽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sup>12)</sup>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는 것이다’는 감정표현의 기능이 있다. 감정은 범위가 넓어서 희노애락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감정에서부터 불만이나 불평과 같은 섬세한 감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중 ‘는 것이다’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표현하거나 화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놀람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 (3) a.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 a'.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 b. 개,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 b'. 개,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3a)와 (3b)는 각각 음식을 먹은 후 맛에 대한 평가,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3a')는 화자가 먹은 음식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매운 상황이 전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 놀란 심리가 표현되었다. (3b')도 친구가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가 되고 이에 대해 화자의 놀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즉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앞선 상황이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3a, b)와는 다르게 화자의 놀란 감정이 추가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는 것이다’를 통해 화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놀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4) a. 왜 이렇게 늦게 왔어?
- a'.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

12) 구어와 문어에서의 실현 기능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학습자의 학습 단계와 학습 기능을 고려하여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 b.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 b'.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 거야?

(4a)는 상대방이 약속에 늦게 온 것, (4b)는 모기가 많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4a')와 (4b')는 지적이나 의문 제기보다는 처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3)과 (4)에서 나타난 감정표현 기능은 ‘-는 것이다’의 양태적 의미인 ‘강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곧 ‘강조’로 이해된다. 즉 화자가 느낀 ‘놀람’, ‘불만’, ‘불평’을 상대방에게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3), (4)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주로 ‘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일상대화에서 ‘-는 것이다’는 선행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 (5) a. 이름을 여기에 써요?  
a'. 이름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b. 이 길로 가면 있어요?  
b'. 이 길로 가면 있는 거예요?
  
- (6) a. 편지는 잘 읽고 있어?  
a'. 편지는 잘 읽고 있는 거야?  
b. 너에게 화났어.  
b'. 너에게 화난 거야.

(5a)는 이름을 쓰는 곳을 질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상황이 예상되지 않거나 긴밀한 연관성이 없다. 반면 (5a')는 먼저 얻은 정보, 즉 서류를 작성할 때 이름을 써야하는 곳(정보)을 들었고, 다시 이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5b)와 (5b') 역시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즉 ‘-는 것이다’는 선행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의 예도 확인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5)와 같이 앞선 상황이 전제가 된다. (6a')는 편지를 잘 읽으라는 명령을 확인하고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6b')는 상대방에게 화가 난 감정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요컨대, 구어 담화의 일상 대화에서 ‘-는 것이다’는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놀람, 불만·불평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앞선 상황에서 제시된 정보나 감정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문어 담화의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는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에 대해 논의한 안인경·강병창(2009), 정상철(2016)에서 ‘-는 것이다’는 인과관계, 환원관계, 강조, 상세화, 요약, 양보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박나리(2012)에서는 ‘-는 것이다’가 텍스트 속에서 화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담화전략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재처리하고 그 정보에 대한 강한 확신, 즉 강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이런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런 논의들은 결국 글쓰기와 읽기에서 학습자들이 선·후행 정보를 응집력 있게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문어 담화에 실현된다고 보았다.

첫째, 텍스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 (7) a. 즉, 우리가 하나를 전경으로 지각하면 다른 하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 b. 다시 말해 누가 뭐라도 자신이 체득한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 c. 그러므로 경영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존의 노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 d. 결국 문학 표현론의 귀결점은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적 창조의 천재인 작가의 내면을 안다는 것이다.

(7a-d)에서 ‘-는 것이다’는 앞선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을 한다. (7a-d)는 모두 앞서 기술된 내용이 전제가 되고 ‘-는 것이다’를 통해 이것을 요약하고

있다. 이런 경우 ‘-는 것이다’는 ‘즉’, ‘다시 말해’, ‘그러므로’, ‘결국’과 같은 접속부사와 함께 나타난다.

둘째, ‘-는 것이다’는 화자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설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주장을 도출해 내는 데에 ‘-는 것이다’가 사용된다.

- (8)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더 과장되게 말할 때도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8)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글로 ‘-는 것이다’를 통해서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8)에서도 ‘-는 것이다’는 근거라는 선행 정보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 문어 담화에서 ‘-는 것이다’는 요약과 주장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는 것이다’는 앞선 상황이나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확인하거나 요약, 주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는 예상하지 못한 앞선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것은 결국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자의 감정과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행 상황이 전제된다는 것과 특정한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는 것이다’의 이런 특성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4. '-는 것이다'의 학습 단계와 학습 모형

### 4.1 '-는 것이다'의 학습 기능과 단계 설정

'-는 것이다'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와 학습 영역 그리고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 단계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고 학습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에 따라서도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태도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의 기능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감정 표현하기 중 기본적인 감정에 해당하는 '희노애락'의 경우에는 초급에서도 학습이 가능하지만 고민 표현이나 심정 표현과 같은 기능과 같이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중급과 고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초급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문법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답하기'를 할 수 있고 중급 이상에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단계별 기능과 활동을 설정하기 위해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모형 개발'(이하 <국제 통용>)<sup>13)</sup>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수행 기능'을 참고하였다. <국제 통용>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표 4와 같이 5개 범주, 52개 항목으로 제안하고 있다.

---

13) 2010년부터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요목 설계, 교재 개발, 평가를 아우를 수 있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위하여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개발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단계와 2단계, 2016년에는 3단계로 점검 및 보완 연구가 이루어졌다. 3단계의 후속 연구로 2017년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실시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된 4단계 연구 성과물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참고한 자료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4단계' 결과물이다.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표 4] <국제 통용> 제시 기능 범주 및 항목<sup>14)</sup>

범주	항목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4), 진술하기(6), 보고하기(5), 묘사하기(4), 서술하기(3), 기술하기(6), <u>확인하기(3)</u> , 비교하기(4), 대조하기(3), 수정하기(4), 질문하고 답하기(2)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1), 권유하기(3), 요청하기(2), 경고하기(4), 충고하기/충고구하기(4), 조언하기/조언구하기(3), 허락하기/허락구하기(2), 명령하기(1), 금지하기(2), 주의주기/주의하기(5), 지시하기(4)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4), 반대하기(4), 부인하기(4), 추측하기(3), 문제 제기하기(5), 의도 표현하기(4),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2), 가능/불가능 표현하기(2), 능력 표현하기(2), 의무 표현하기(2), 사과 표현하기(1), 거절 표현하기(3)
<u>감정 표현하기</u>	만족/불만족 표현하기(3), 걱정 표현하기(3), 고민 표현하기(4), 위로 표현하기(3), 불평·불만 표현하기(4), 후회 표현하기(3), 안도 표현하기(4), 놀람 표현하기(3), 선호 표현하기(3), 희노애락 표현하기(2), 심정 표현하기(5)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1), 소개하기(1), 감사하기(1), 축하하기(1), 칭찬하기(3), 환영하기(2), 호칭하기(1)

[표 4]는 <국제 통용>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수행 기능의 세부 사항들이다. 3장에서 논의한 ‘-는 것이다’의 의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sup>15)</sup>

14) ()의 숫자는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1급에서 6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15) <국제 통용> 3단계에서는 ‘담화 구성하기’ 기능이 별도로 제안되었는데 ‘담화 구성하기’에 ‘열거, 예시, 강조, 전환, 정의’ 등이 세부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담화 구성하기’는 모든 단계에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단계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9) 설명하기, 진술하기, 확인하기, 불만·표현하기, 놀람표현하기

(9)의 기능들은 주로 중급인 3, 4급과 고급인 5급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확인하기’와 같은 기능은 초급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기초적인 문법과 어휘를 익히는 초급 학습자들에게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는 것이다’를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는 것이다’의 사용 빈도와 기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급에서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의 다양한 담화 기능을 단순화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한다면 초급 학습자들도 충분히 학습 가능할 것이다. 특히 대화 중 정보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 초급 단계 학습자들에게는 ‘정보 확인하기’ 기능이 필요하므로 초급 단계에서의 학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는 것이다’는 하나의 형태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오히려 학습 부담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표현의 경우 ‘어서 오세요’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어휘적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전체 단계에서 부여되는 문법 학습 부담량을 줄일 수 있다.

그 밖에 요약과 주장의 기능은 설명하기와 진술하기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여 특정 담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4.2에서 구체적인 학습 모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4.2 ‘는 것이다’의 학습 모형

‘는 것이다’를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 기능과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모형은 실제적인 과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 살펴본 ‘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과 4.1에서 살펴본 <국제 통용>의 학습 기능을 참고하여 단계별로 학습 가능한 모형을 설계해 보았다. 초급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중급 단계에서는 감정 표현하기와 요약하기, 고급 단계에서는 주장하기 기능을 학습할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는 것이다’의 의미인 ‘강조’와 ‘단정’은 추상적이고 문맥에 따라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므로 효율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는 것이다’가 실현되는 담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학습 가능한 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 모형을 제안한다.

(1) 정보 확인하기

형태	-(으)ㄴ/는 거예요(거야)	단계(영역)	초급 말하기
기능	정보 확인하기	주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 확인하기
<b>수업 내용</b>	<p>〈예시〉 다음 상황을 친구에게 확인하세요.</p> <p>〈상황 1〉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 -어디에 쓰는지 확실히 잘 모르는 상황이 전제. A: 여기에 이름을 쓰세요. B: 이름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A: 네, 여기에 쓰세요.</p> <p>〈상황 2〉 어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어제 친구가 전화를 안 받은 상황이 전제. A: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B: 어제 일찍 잤어요. A: 전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B: 네, 미안해요.</p>		

‘확인하기’와 ‘놀람표현’, ‘불평·불만 표현’은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확인하기’는 초급에서도 필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정보 확인하기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sup>16)</sup> 초급 학습자들은 일상에서 정보를 듣고 선

16) TOPIK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초급(1급과 2급)에서는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하기 기능은 초급에서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배 달 말(65)

택해야할 상황이 많은 단계이므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2) 감정 표현하기(놀람, 불평·불만 표현)

형태	-(으)ㄴ/는 거야(거예요)	단계(영역)	중급 말하기
기능	놀람, 불평·불만 표현	주제	감정 표현하기
수업 내용	<p>&lt;예시&gt; 다음 상황을 친구에게 말하세요.</p> <p>&lt;상황1&gt; 친구가 약속 시간에 오지 않고 있다. A: 왜 이렇게 안 오는 <u>거야?</u></p> <p>&lt;상황2&gt;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다. A: 이 비빔밥, 왜 이렇게 <u>맛있는 거예요?</u></p>		

화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앞선 상황이 전제가 되고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놀라는 감정과 불평이나 불만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는 것이다’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왜’나 ‘왜 이렇게’와 함께 사용되는 통사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V/A-는 거야’를 문법 단위가 아닌 어휘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단계에서 부여되는 ‘-는 것이다’의 문법 학습 부담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구어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해체를 중급 단계에서 제시하면서 일상 대화에서 ‘-는 것이다’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3) 설명하기(내용 요약)

형태	-는 것이다	단계(영역)	중급 읽기
기능	내용 요약하기	주제	한국어의 높임법
수업 내용	<p>〈예시〉 다음 글은 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요약해 보세요.</p> <p>한국의 높임법은 크게 문법과 어휘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우선 문법에 의한 높임법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가다’라는 어휘를 높이려면 다른 어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다’에 선어말어미 ‘-시’를 결합한다. 이런 경우 높임법은 주체를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다 하여 ‘주체 높임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보다’의 주체를 높일 때는 ‘보시다’, ‘오다’의 주체를 높일 때는 ‘오시다’라고 표현한다.</p> <p>반면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높이는 경우가 있다. 먼저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에 따라서 매우 높일 때는 ‘합니다’를 쓰고, 조금 높일 때는 ‘하오’를 쓴다.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상대에 따라서 완전히 낮추지는 않을 때 ‘하네’를 쓰고, 완전히 말을 낮출 때는 ‘한다’를 쓴다. 그리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쓰는 말로서는, 상대방을 높일 때 ‘해요’를 쓰고 높이지 않을 때 ‘해’를 쓴다. 이와 같이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이라 부른다.</p> <p>다시 말해, 문법에 의한 높임법은 주체높임법과 상대높임법으로 나뉘는 것이다.</p>		

요약하는 것은 읽기 수업에서 읽은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즉, 읽은 내용을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가려내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는 것이다’를 활용할 수 있다.

(4) 진술하기(주장하기)

형태	-는 것이다	단계(영역)	고급 쓰기
기능	주장하기	주제	좋은 말하기의 태도
수업 내용	<p>〈예시〉 다음을 근거로 주장하는 글을 써 보세요.</p> <p>우울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듣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단어는 강력을 힘을 지닌 도구가 된다.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를 사용할수록 사람들은 신중해져야 한다. 원자력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도 하지만 방사능으로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원자력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은 신중하게 원자력을 관리하고 시설도 정비를 한다. 말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p> <p><u>그래서</u>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거쳐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p>		

주장하는 글에서 ‘-는 것이다’를 활용할 수 있다.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주장을 쓰는 연습을 한 후, 주장하는 글 전체를 쓰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고급 단계에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요약과 확인과 같은 다양한 ‘-는 것이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5. 마무리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고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는 것이다’의 사용 빈도와 사용 양상을 말뭉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는 것이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의미와 기능,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이미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 ‘-는 것이다’를 제시하기 위해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는 것이다’는 앞선 정보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또 앞선 내용을 근거로 주장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문어에서 나타나는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선행 정보를 확인하거나 앞선 상황에 대한 화자의 놀람, 불평·불만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으로 이것은 기존에 논의된 ‘-는 것이다’의 ‘강조’의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기능들을 한국어교육의 말하기와 글쓰기, 읽기에 적용해 보았다. ‘-는 것이다’는 문어적 표현이고 의미가 추상적이며 다층적이어서 기존에는 중급 이상에서 학습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보 확인하기 기능을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으로 보고 초급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불평이나 불만, 놀람을 표현하는 기능은 중급 말하기로, 요약하기와 주장하기는 각각 중급 읽기와 고급 글쓰기에서 학습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는 것이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였다. 하지만 ‘-는 것이다’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섬세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가 실현되는 다양한 상황과 기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시 단계와 방법을 고찰할 것을 과제로 남기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 참고 문헌 □

- 강소영(2004), 『명사구 보문 구성의 문법화』, 한국문화사.
- 고영근(1995), 『텍스트 이론』, 아르케.
- 김정아(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항목 선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언주(1996), 「‘것’의 분포와 기능」, 『우리말 연구』 6, 우리말학회. 179-216.
- 김종복·강우순·안지영(2008), 「말뭉치에 나타난 ‘것’ 구문의 유형 및 특성」, 『언어과학연구』 45, 언어과학회. 141-163.
- 김태엽(1990), 「의존명사 {것}의 문법화와 문법변화」, 『우리말 글』 8, 대구어문학회. 177-198.
- 박나리(2012), 「‘-는 것이다’ 구문 연구-문법기능과 담화기능 그리고 화자의 담화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5, 국어학회. 251-279.
- 박소영(2001), 「‘-은 것이다’ 구성의 텍스트 분석」, 『한국 텍스트과학의 제과제』, 역락.
- 신선경(1993), 「‘것이다’구문에 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94-110.
- 안인경·강병창(2009), 「한국어 ‘-는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과 독일어 대응 형식에 관한 병렬코퍼스 기반 연구」, 『언어와 언어학』 46,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85-115.
- 장미라(2009), 「‘-은/는 것이다’ 구성의 표현 문형 설정과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9-253.
- 장경현(2010),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역락.
- 전혜영(2005),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는 것이다’의 화용 의미」, 『국어학』 46, 국어학회. 255-276.
- 정상철(2016), 「‘-는 것이다’의 텍스트 기능과 의미」, 『텍스트언어학』 41, 245-267.
- 조민영(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는 것이다’의 담화기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정(2011), 「표현문형 ‘-은/는 것이다’의 담화기능」, 『한국어교육』 22-2, 국

- 제한국어교육학회. 329-349.
- 최준 외(2010),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담화와 인지』 17-2, 담화인지 언어학회. 163-190.
- 최준(2015), 『한국어의 확장된 어휘 단위 연구: 분포와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사만(2006),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논총』 44, 한국문화언어학회. 101-144.
- 홍혜란(2015), 「한국어 표현문형 범주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N-gram 분석을 활용한 연구 방법 및 방향의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4-139.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Loanguage Teaching Publications.(김성환 옮김(2002),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 Lyons, J. (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tinger, J. R & Decarrico, J. S(1992), *Lexical phrase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wley, A. & Syder, F. H. (1983). *Two puzzles for linguistic theory: Nativelike selection and nativelike fluency*. In J. C. Richards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pp. 191-227). London: Longman.
- Wray, A. (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A Teaching Plan for the Korean Formulaic Expression ‘-neun geosida’

Kim, Jung-a · Choi, Ju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formulaic expression ‘-neun geosida’ and suggests a teaching plan for learners of Korean. ‘-neun geosida’ is used by the speaker to ‘emphasize’ or ‘conclude’ their utterance. Since the scope of these two functions are rather broad, the expression appears in a wide range of registers and patterns. In fact, the n-gram analysis of the morphologically annotated Sejong Corpus shows that there are at least two to three ‘-neun geosida’ patterns among the top ten most frequent patterns. Similarly, if we analyze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Corpus, it appears that the expression occurs frequently, especially in the Speaking and the Reading sections.

However, ‘-neun geosida’ does not explicitly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Such a shortcoming can be explained not only by the rather abstract meaning of ‘-neun geosida’, but also by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Korean formulaic expressions so far.

This study argues that ‘-neun geosida’ needs to be not only taught a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curriculum, but also presented in several stages in accordance with the learners’ levels.

As ‘-neun geosida’ is highly dependent on the situation where it is used, it is essential to present the preceding and following semantic contexts. For example, ‘-neun geosida’ is often used in situations which the speaker had not expected, either to summarize what has just been said or to make a claim.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constructions within which it frequently appears, including constructions with ‘how come’, ‘that is to say’, and ‘therefore’. These usages of ‘-neun geosida’ are precisely illustrating the emphatic function of the expression, which is most effectively taught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in terms of ‘summary’, ‘claim’, and ‘emotion term’.

정형표현 ‘-는 것이다’의 교육 방안 논의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neun geosida’, Phraseological item, Formulaic expression, Emphasis, Summary, Claim, Emotion term, Function

이 름 : 김정아

근무처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 화 : 010-3547-7363

이메일 : ja-kim@knu.ac.kr

이 름 : 최준

근무처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 화 : 010-9493-2618

이메일 : c-juni@daum.net

논문 접수: 2019년 11월 29일

심사 완료: 2019년 12월 10일

게재 확정: 2019년 12월 15일